

먼지와 모래의 날들

참으로 중요한 것은 메마름을 건디는 일이다

— 원효, 「大乘起信論疏」

장만호

오래된 책을 펼치자 모래가 흘러내린다
아직 외출로부터 돌아오지 않은 사서와
몇 줄의 주석을 찾아 서가를 순례하는 사람들의 저녁

책은 항상 기도의 형식으로 서 있고
손바닥을 열어 보면 손금 같은 문장들
어디론가 흘러, 가고 있다

책장을 넘기며 한때, 나는
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되고 싶었던가
<연기수업>을 읽던 밤의 책상에 적어 놓던 말들과
'당신'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몇 마디의 조용한 소란과
단 하나의 문장으로 오래 앓던 날들,

기억하지 않았으면
먼지의 문체를 살았으면
모래의 문장을 살았으면,

주어를 버리고 떠도는 술어들과
감정들처럼

가벼웠으면
목적어 없이 사랑했으면
좀 더 하찮아졌으면

그렇게 먼지와 모래의 날들을 살았는데

오늘,
책갈피에서 떨어지는 20년 전 대출기록표의 내 이름;
...
.....

주르륵,
시간의 문장들이 모래처럼 흘러내리고
내가 아닌 어딘가에서, 누군가 조용히 저를 글썽거리는 소리
잠자코 흠어진, 모래를 쓸어 담는 소리

참으로, 중요한 것은, 메마름을
견디는 일이다 메마름을
견디는, 일이다... 중얼거리며

누군가가 빌려 간 나를 찾아서
빈 자리에 꽃힌 어둠을 꺼내 읽고 또 읽는 황사의 저녁

장만호 | 200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. 시집 『무서운 속도』.